

봄의 향연: ‘뿌리’

“매년 봄의 축제가 계속되고, 가을마다 대자연의 만찬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시린 겨울과 피약별을 견뎌내는 건강한 뿌리의 힘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을 수 없다. 뿌리는 온갖 풍파를 견뎌낸 세월의 승리자이자, 자연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화려한 꽃과 풍성한 열매가 곧 ‘뿌리’다.”

약동의 계절이 왔다. 그 속에서 온 세상 생명들은 춤을 출 것이다. 엄동설한을 이겨낸 그들만의 화려한 축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형형색색 다채로운 꽃들이 만발할 것이고, 짙은 봄 내음이 가슴을 뛰게 할 것이다. 나는 이 위대한 봄의 향연을 “뿌리들의 축제”라 부르고 싶다.

모든 식물은 그 형태가 어떻든 수 십 미터에 이르는 나무에서부터 몇 센티미터의 풀까지 뿌리와 줄기, 잎 3등분으로 조직화되어있다. 뿌리는 땅속 깊이에서 생명의 영양분을 올리고, 굳건한 줄기는 가지와 잎들이 충분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고르게 제공한다. 하나의 개체는 완벽한 하나의 조직시스템(organizational system)이고, 이것이 모여 건강한 숲이라는 세계(the world)를 이룬다.

나무마다 뿌리의 형태는 다양하다. 차나무는 줄기의 높이만큼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 있다. 그것이 돌산이든 비탈이든 상관없이 한 그루 차나무는 곧 보이지 않는 깊은 뿌리임을 알기에, 나무가 비록 아이 키만 하다 해도 우습게 보지 않고 겸허해야 하는 이유다. 엄청난 크기의 메타세콰이어 뿌리는 그 키만큼 옆으로 뻗어나간다. 그들은 다른 메타세콰이어 나무와 서로 뿌리를 엮음으로써 쓰러지지 않고 생존력을 강화하였다. 메타세콰이어가 군락지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유이다. 온 산을 뒤덮고 있는 그들의 뿌리는 더불어 하나가 된다.

조직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연 리더십이다. 우리가 수많은 경영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결국 수렴하는 곳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리더십은 어떤 상황에서든 조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매년 봄의 축제가 계속되고, 가을마다 대자연의 만찬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시린 겨울과 피약별을 견뎌내는 건강한 뿌리의 힘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을 수 없다. 뿌리는 온갖 풍파를 견뎌낸 세월의 승리자이자, 자연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화려한 꽃과 풍성한 열매가 곧 ‘뿌리’다.

스쳐가는 시선이 아름다운 장미의 유혹에 빠져들 때, 그 매력은 돌아안 가시가 아닌 굳건한 뿌리에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한 자세로 이 봄의 향연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Written by C.E.O James Roh(노상충)

내가 경전을 읽고 있는 사이, 나팔꽃은 자기를 완성시켰네! _ 암자에서



James Roh

